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현대시]

[1 ~ 4] <출전> 유치환,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김승희, 「달걀 속의 생(生) 2」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복두성좌’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나)에서는 ‘달걀들’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4연의 ‘추운’, ‘따스한’ 등을 통해 축약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축약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을 보면, ‘복두성좌’는 ‘우리 집’을 보호하는 주체이므로,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복두성좌’가 밤마다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비록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마분지곽 위로’ ‘기어오르며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을 보면, ‘너희들’은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팔려온’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어서 돌아와’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집’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냉장고’를 열고 접한 ‘달걀들’을 통해 자신 ‘역시 여권이 분실된’ 것과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게 되므로, ‘냉장고’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는 ‘나’가 ‘부화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달걀들’이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거리 끝’이 ‘저녁 한길’로 나간 시적 화자가 보게 된 시적 대상일 뿐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는 ‘아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

상인 ‘아이’를 부르고 있고,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보요안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시적 상황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하는 것에서 ‘가난’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는 ‘수유’하다고 표현된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무궁’하다고 표현된 끝이 없는 ‘우주’가 ‘인연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대비되는 시적 대상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와 ‘살아서 불행하다’는 ‘나’의 모습이 대비되어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5 ~ 10] <출전> 배중대 외, 「형사소송법」

5.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윗글에서 자백배제법칙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9문단에서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증명력 판단의 주체를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증거재판주의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의 의의를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예컨대 영장 없이 ~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독수과실이론의 적용 사례를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목적을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이 증명력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관이 판단한 문서는 증명력이 없다. 따라서 ㉠을 보여주는 사례로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증명력이라고 하였으므로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된 증거는 증명력이 있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증명력이라고 하였으므로 결정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고 법관에게 인정된 증거는 증명력이 있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1문단에서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2문단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하였고, [증거 1]과 [증거 1-1]은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모두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증거 1-1]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법원이 [증거 2]가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곧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피고인, 증인 등 ~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이 전문증거라고 하였으므로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증거들이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7문단에서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전문법칙의 근거라고 하였다. 그런데 ㉡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을 기재한 조서로 법정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6문단에서 전문진술은 ‘구두로 전하는’ 전문증거라고 하였는데 ㉢는 전문서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7문단에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전문법칙의 근거라고 하였는데 ㉣는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7문단에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한다는 점이 전문법칙의 근거라고 하였는데 ㉤는 법관이 진술자와 문답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와 ㉣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법칙의 예외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9문단에서 ‘모순되는 증거가 ~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라고 하였으므로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증명력이라고 하였고, 9문단에서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9문단에서 ‘신빙성 없는 증인의 ~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9문단에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가치를 판단한다고 하였고,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9문단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법관의 자유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문맥상의 의미 파악하기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며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 본다면, ‘자백을 얻어 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켜주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만 의존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키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문·예술]

[11 ~ 16] <출전> 계몽 스톨니츠, 「미학과 비평철학」
조지 디키, 「현대 미학」

1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와 (나)의 핵심 주제는 ‘미적 대상’이다. (가)에

서는 '미적 대상'과 관련된 '무관심적', '공감적', '관조' 등과 같은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구분의 원리', '지각 가능성의 원리' 등과 같은 개념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나)의 2문단의 '예술 작품과 구분되는 ~미적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와 4문단의 '비어즐리는 이 원리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밝히며'를 통해 ㉓는 '객관적', ㉔는 '구분', ㉕는 '없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중심 개념 이해하기

(가)의 1문단에서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고, '미적 태도는 어떤 대상을 ~실제적 지각 태도와 다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고, '미적 태도는 ~대상 자체를 ~'관조'하는 태도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1문단에서 '그는 미적 대상이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예술 작품의 어떤 속성이 ~미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문단의 예에서 그림의 창작 연도에 대한 진술은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물리적 측면에 대해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1문단에서 '미적 대상이란 예술 작품의 속성 중 올바르게 감상되고 비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물리적 측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미적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중심 내용 이해하기

(가)의 1문단의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와 (나)의 3문단의 '지각 가능성의 원리는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를 통해 (가)와 (나) 모두,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미적 대상이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규정된다고 하지 않았고, 미적 대상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예술 작품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2문단에서 '다시 말해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나)의 1문단에서 '미적 대상이 감상자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는 감상자와 예술가의 상호 작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나)의 2문단에서는 '예술 작품과 구분되는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가)의 4문단에서 '섬세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식별력'이라고 하였고, '식별력은 반복해서 ~훈련을 함으로써 기를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교향곡을 감상하기 위해 곡의 섬세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 발휘하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가)의 ㉓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 (나)의 ㉔는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의 '취했다'는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 ㉕의 '취했다'는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㉔의 '취했다'는 '어떤 특정

한 자세를 하다.', ㉕의 '취하고'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㉔의 '취했다'는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 ㉕의 '취했다'는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㉔의 '취하기'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 ㉕의 '취했다'는 '어떤 특정한 자세를 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17 ~ 20] <출전> 임제옥, 「시조의 노년 표현법」

17. [출제의도] 작품의 의미 파악하기

화자는 자신의 흰머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청산이 옛 모습을 되찾는 것과 비교하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는 인정하면서도 늙음에 대해 한탄하던 자신을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유흥이 좋고 미워질 만큼 충분히 즐기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몸이 늙어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어차피 늙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삶을 즐기므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공평한 하늘 아래 소년들 또한 늙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에 흰머리가 난다고 인지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마)에서 '모름'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변하지 않아 '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소년' 시절 이후에도 화자와의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일월'과 '장천'은 무한히 지속되는 영원성을 의미하며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청산'이 '황산'으로 변하는 것은 화자가 나이를 먹고 늙는 것과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다)에서 '적설'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의 흰머리와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풍'이 분 뒤에는 모두 녹아 화자의 흰머리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라)에서 '소년'은 '소년행락'의 시절이 계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한한 인간인 화자와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소년행락'의 시절을 현재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소년행락'의 시절이 끝난 화자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시어의 특징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㉔의 변화를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노화를 확인하고 있고, (다)에서 화자는 자연은 변화하지만 ㉕는 변하지 않음을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노화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㉕는 모두 화자가 세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화자의 특징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화자는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백발이 난 것이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백발이 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화자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난 것은 세월의 흐름이 원인이므로 적절하다. ③ 화자가 흰머리를 뽑는 것은 자신이 아닌 어머니를 위한 반복적인 행위이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가 흰머리를 뽑아 짧아 보이고 자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흰머리를 보고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은 북당이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21 ~ 25] <출전>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안석경, 「검녀」

2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김씨'가 '노파'를 통해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노파의 집을 떠나 '장 시랑'을 찾아가 사실을 밝히기까지의 서사의 흐름을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에서 장 시랑의 전실 부인이 '연씨'임을 알 수 있고, '전실 자체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에서 '유씨 부인'이 '연씨'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노파에게 '상급'을 주며 '왔던 사람'에 대해 '날날이 물'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유씨 부인'이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구'하였으며 자객이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바쳤'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시랑이 병을 ~들어오라 하거늘'을 통해 '장 시랑'이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김씨'를 들어오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본가'로 돌아온 '신부'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날날이 고'하니 '그 부모'가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의 특성 이해하기

'노파'는 자신의 '양자'가 '신랑의 머리를 베어' '유씨 부인에게 바쳤'던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고, '공겁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작품 속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저'가 '선생'에게 '산림에 은거하지' 말고 '큰 도회지'에 살면서 '의식의 충족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며 살라고 조언한 것은 '저'가 '선생'을 떠나면서 한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주인댁'이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한 후 '소저'가 '타관'으로 '피신'하였으며 '그때' '저'가 '따라'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소저'가 '원수의 집'에서 '안팎식구'를 죽이고, '부모의 산소'를 찾아가 '복수한 사실을 고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소저'가 '부모의 산소'를 찾아가 '복수한 사실을 고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선생이 기사가 못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이 결심한 바를 저버리는 것이'니 '내일 새벽에 떠나' '면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노닐'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기사를 잘 택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라는 '소저'의 당부를 따르기 위해 '저'가 '선생'을 찾아간 것은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김씨'가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을 찾아가는 것은 '장 시랑'에게 '신랑'의 죽음에 대해 알아낸 '전후 사실'을 '날날이 아뢰'어 자신의 '누명을 씻'으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김씨'가 '유씨 부인'의 죄를 밝힌 후 그에 대한 '처분'은 자신이 아닌 '준구'

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을 따르는 모습이므로 적절하다. ③ ‘저’는 ‘선생의 능하신 바’가 ‘큰 방법’과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여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김씨’는 ‘도령의 복색’으로 집을 나가 ‘누명을 씻’고자 하였으며, ‘저’는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나 ‘칼 쓰는 법을 익혔’다고 하였으므로, 두 인물 모두 남장을 하고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26 ~ 29] <출전> 조정래, 「동백」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은 ‘먹구름’과 ‘비’를 통해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은 ‘먹구름’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인물들의 정서 이해하기

‘여공들’은 ‘경리과장’의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동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공들’이 절망감을 느낀 때는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분옥이’는 자신이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인 ‘오만 오천 원’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분옥이’는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정신’이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봉자’는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던 ‘삼만 원’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해 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길순이’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자꾸 눈시울’이 ‘매워’졌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여공들이 ‘각자’ ‘회사에’ ‘맡긴’ ‘그 돈의 명의’는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여공들이 ‘맡긴’ 돈을 모두 합하면 ‘팔백오십여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여공들은 ‘사채 법정 이자’를 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번 조처’ 이전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에게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길순이’는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자취비, 사글새방 값’ 지불, ‘집에 사천 원’ ‘송금하기’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신선놀이’보다 ‘수입’이 많은 ‘지옥탕’에서 견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분옥이’는 ‘만 오천 원’만 더 모아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므로 적절하다. ② ‘봉자’는 ‘질은 향수’를 느껴 돈을 벌었으며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다짐하므로 적절하다. ③ ‘사장’은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싸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그들

을 ‘용서’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여공들은 ‘사 년째 되는 해부터’ ‘회사’에 맡긴 ‘원금’을 찾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생활 과학]

[30 ~ 34] <출전> 신종홍 외, 「디지털 영상처리 입문」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을 통해 무손실 압축이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임을 알 수 있고, 1문단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은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 주는 기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반면 손실 압축은 ~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어’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 파일 형식이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무손실 압축은 ~ 복원이 가능하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손실 압축은 중복되거나 ~ 데이터를 제거하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 데이터의 용량은 커지게 된다’와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 용량을 줄여주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는 ~ 화소로 구성되며’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RGB 모델은 ~ 함께 표현하는데’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변경된 YCbCr 모델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 분리하여 화소의 정보를 표현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7문단의 ‘그 결과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를 통해 ㉠에서는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색상 모델이 RGB 모델에서 YCbCr 모델로 변경되면 ~ 샘플링이 진행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의 ‘DCT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하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의 ‘DCT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 나타내는 과정이다.’와 6문단의 ‘양자화 과정에서는 ~ 반올림하게 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7문단의 ‘허프만 부호화는 빈번하게 ~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핵심 개념 이해하기

4문단의 ‘그래서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 일부만 추출된다.’를 통해 Y는 모두 추출되지만, (가)와 (나)에서 Cb와 Cr은 일부만 추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샘플링 비율은 4:2:0이므로 (가)에서는 두 번째 행에서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J:a:b’의 비율로 ~ 정보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보면 4×2 블록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서 각각 한 개의 색상 정보를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와 (나)의 샘플링 비율은 각각 4:2:0과 4:1:1로 다르지만, 추출된 색상 정보의 개수는 2개로 동일하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인

간의 눈은 밝기의 변화에는 민감하고 ~ 일부만 추출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6문단의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지만, 고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은 고주파 성분의 절댓값보다 크다.’라고 하였고, 6문단의 ‘양자화 과정에서는 DCT로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게 된다.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지만, 고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라고 하였다. 저주파 성분을 특정 상수로 나눈다는 것은 값을 줄이는 것이지 고주파 성분처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양자화 과정을 거쳐 ㉠가 0의 값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6문단에서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은 줄이고 고주파 성분은 제거해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양자화 과정을 거친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은 DCT로 얻은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보다 클 수 없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5문단의 ‘DCT가 수행되면 ~ 고주파 성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모여’를 통해 ㉠와 ㉡는 저주파 영역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6문단의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를 통해 ㉢의 절댓값은 0임을 알 수 있고, ㉣의 절댓값은 0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화법과 작문]

35	③	36	②	37	④	38	③	39	⑤
40	①	41	④	42	⑤	43	⑤	44	①
45	④								

3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1문단의 '이렇게 QR 코드는 ~ QR 코드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에서 발표 제재의 선정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식 이해하기

2문단의 'QR 코드는 명암에 따라 ~ 바코드와 유사합니다.'를 통해 빛을 이용하는 원리는 QR 코드와 바코드의 유사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발표에 활용한 '표'는, 바코드와 QR 코드의 구성 및 답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이 사진에서처럼 ~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에서 일상생활에서 QR 코드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보신 것처럼 ~ 활용되고 있습니다.'에서 상품 홍보, 결제, 웹 사이트 연결과 같은 QR 코드의 다양한 용도를 알려주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QR 코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 2'를, 5문단에서 QR 코드를 구성하는 기능 패턴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진 3'을 활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뒤에 계신 분들 ~ 잘 보이시죠?'에서 교실 뒤쪽까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2'의 크기를 조절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는 위치 탐지 패턴, ㉕는 타이밍 패턴, ㉖는 정렬 패턴, ㉗는 모듈이다. 4문단에서 모듈의 수가 늘어나면 QR 코드의 크기가 커지지만,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영역은 위치 탐지 패턴이 아니라 인코딩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은 QR 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어도 쉽고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타이밍 패턴은 다른 모듈들의 위치 정보와 QR 코드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정렬 패턴은 QR 코드가 곡면 등에 인쇄되어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 타이밍 패턴, 정렬 패턴이 기능 패턴에 속한다고 하였고, 기능 패턴이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는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생각을 유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번 모임에서 ~ 이야기하기로 했잖아.'라고 하며 지난 활동에서 결정된 주제를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우선 한 명씩 ~ 먼저 이야기해 볼래?', 두 번째 발화에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얘기해 볼래?'라고 하며 발언자의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다른 사람을 ~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세 번째 발화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 입장으로 나뉘는구나.'라고 하며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오늘 나는 이야기를 ~

다음 모임 때 발표해 보자'라고 하며 다음 모임의 활동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학생 3'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 모습을 응원했겠지.', [B]의 '학생 2'는 '진정한 영웅이 ~ 말에는 동의'한다며 모두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A]의 '학생 3'은 '하지만 법 또한 ~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B]의 '학생 2'는 '영웅의 정의로움을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고 하며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나)의 1문단에서 "영웅'이라고 하면 ~ 떠올릴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웅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영웅보다 정의로운 홍길동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부정부패한 권력층의 ~ 의적 활동을 펼쳐'라고 (가)의 '학생 2'와 '학생 3'이 언급한 내용을 활용하여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돕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 드러나는 '나는 홍길동의 행동이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는 '학생 2'의 견해에 공감하며 홍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나)의 2문단에서 '그러나 친구들과 ~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예를 들어 재난 현장 ~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이번 동아리 활동은 ~ 좋은 기회였다.'라고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활동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고쳐쓰기

초고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마무리 되어있는데 (나)에서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로 수정되어 글쓴이의 다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내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때?'라는 조언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초고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에서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된 어휘 중 '수용하는'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초고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고전을 읽으면 ~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글쓴이의 생각이 확장되었음을 드러내는 '나아가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제목과 관련해 글쓴이는 (나)의 3문단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으나, 초고에는 봉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조언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이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작문 계획 이해하기

(가)의 결론에는 본문에서 서술한 설문 조사 결과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수면 실태가 수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서론에 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로 항목을 나누어 조사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④ 본문에서 설문 결과를 백분율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3]에서 각성 효과는 카페인의 섭취로 인해 뇌의 활동이 억제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각성 효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고, [자료 2]에서는 멜라토닌과 각성 효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책으로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㉔]는 국가별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을 보여주는 표이므로 외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다. ② [자료 2]는 빛의 노출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량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은 카페인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료 1-㉕]는 인체의 면역력과 관련된 T세포의 수치가 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자료 2]는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는 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에서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수면의 양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작문 맥락 고려하여 글 이해하기

(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와 잠과 면역력과의 관계, 잠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특징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에는 예상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나)에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은 (가)와 (나)에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②	43	③	44	④
45	⑤								

35.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이해하기

‘울렸네’는 어간 ‘울리-’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다. 따라서 ‘울렸네’는 ㉠에 속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끝내겠습니다’는 어간 ‘끝내-’와 선어말 어미 ‘-겠-’,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② ‘준비하기’는 어간 ‘준비하-’와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③ ‘들어가신’은 어간 ‘들어가-’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 ‘-시-’, 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④ ‘계신’은 어간 ‘계시-’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연결 어미 이해하기

㉠의 ‘-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의 ‘-어’와 ㉢의 ‘-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의 ‘-고’와 ㉤의 ‘-어’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37.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확인된 문제’의 사례에서 ‘출력된 자료’는 ‘표기된 자료’의 ‘표준 발음’이 그대로 출력되어 있다. 따라서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을 알 수 있다. 먼저 ‘끓어지다[쪄너지다]’에는 ‘ㅎ 탈락’이, ‘압탑[압탁]’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탈락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없애다[엎:썰다]’에는 ‘된소리되기’가, ‘피붙이[피부치]’에는 ‘구개음화’가, ‘웃어른[우더른]’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교체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은 ㉠, ㉡이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하기

‘사례 1’에서 ㉠은 접사인 데, 학생들의 반응에서 ㉡을 어근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접사로 알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적으므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판’은 접사 ‘한-’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다.
 ① ‘사례 1’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번’은 어근 ‘한’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하지만 ‘떡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미닫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사례 3’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알사탕’은 어근 ‘알’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불휘’에는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불휘’ 뒤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주격 조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식미’에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식’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해 체언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브르매’는 명사 ‘브름’에 조사 ‘애’가, ‘ㄹ래’는 명사 ‘ㄹ물’에 조사 ‘애’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애’는 현대어 풀이에서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하느니’는 현대어 풀이에서 ‘ 많으니’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므른’에는 명사 ‘믈’의 끝소리 ‘ㄹ’을 조사 ‘은’의 첫소리로, ‘바르래’에는 명사 ‘바를’의 끝소리 ‘ㄹ’을 조사 ‘애’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내히’에는 끝소리에 ‘ㅎ’을 가진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이’를 만나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 이해하기

인터넷 매체인 (다)는 인쇄 매체인 (나)와 달리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댓글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글자 크기의 차이를 통해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달리 (나)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와 달리 (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광고의 특성 이해하기

공기 청정기의 기능과 관련된 용어인 ‘CADR’의 의미와,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만 활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생물에게 위협이 된다는 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자고 설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공기 청정기의 기능을 제시하여 상품의 판매가 촉진되도록 설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하단에는 ‘○○일보’라는 언론사 명칭과 ‘김△△’라는 기사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는 표제,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과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는 부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는 전문으로, (다)는 기사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광고문의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에서 ‘두 배’의 ‘두’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지구 환경도’의 보조사 ‘도’는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때문이다’의 의존 명사 ‘때문’은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임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접속 부사 ‘그래서’는 앞 문장과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이들’의 대명사 ‘이’는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추론하기

[C]에서 ‘지혜’의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은 ~ 내용이 겹쳐.’를 보면,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 어르신께

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혜영’의 ‘그러고 보니 ~ 제작 목적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보면, ‘혜영’이 올린 기사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호상’의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와, ‘윤일’의 ‘이게 원본인데 확인해 볼래?’와, ‘지혜’의 ‘이게 더 잘 보인다.’를 보면,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윤일’이 올린 장수 의자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호상’의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와, ‘지혜’의 ‘그럼 내가 너 대신 ~ 익숙할 테니까.’를 보면, ‘지혜’가 올린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지혜’의 ‘그런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와 호상의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를 보면, ‘호상’이 올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나)에서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 있을 것 같아.’를 보면, ㉠에서 활용되어야 할 사진 속 장수 의자에는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 <보기 2>에서 실제 활용된 사진에는 ‘잠시 쉬어 가세요.’가 ‘무단 횡단 금지’보다 더 크게 적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지오’의 ‘우선 각 ~ 필요가 있겠어.’를 보면, 중심 화제를 이어 주는 말을 중심 화제보다 글자 크기를 작게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지오’의 ‘더불어 중심 화제들의 ~ 좋을 것 같아.’를 보면, 제시 순서에 맞게 중심 화제에 번호를 달아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혜영’의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은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와,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를 보면, 할아버지는 그림으로,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지오’의 ‘그런데 개선 요구 사항이 ~ 효과적일 것 같아.’를 보면, 표로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을 원그래프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